

삼천리 ES 대표 현치웅 동문

## 에너지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무한 잠재력

F  
R  
O  
N  
T  
I  
E  
R



EEWS(Energy, Environment, Water, Sustainability) 최고전략과정은 KAIST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녹색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EEWS 동문들은 산업, 학계, 정부, 금융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Forum을 통해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사업기회를 공유하고 있다. 이 중 2010년 EEWS 2기 과정을 수료하고, 3~4기 강사로 활동한 현치웅 삼천리 ES 대표를 만나 에너지의 효율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최근 전력사용의 과부하로 인해 사상 초유의 blackout이 발생하였다. 이는 에너지 수요 예측에 대한 실패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에너지 가격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원인을 따지기 전,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문제는 지구 환경 문제와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

현치웅 대표가 몸담고 있는 삼천리 ES (Energy Solution)는 에너지 솔루션 & 엔지니어링(Energy Solution & Engineering) 전문 기업으로, 에너지의 생산 및 공급이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재사용하며, 기존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현대표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화석연료의 유한성과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심각한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 전 인류의 생존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이산화탄소의 저감,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 솔루션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은 신 재생에너지, 원자력, CCS, 에너지 효율화 등 크게 4가지다. 이 중 에너지 효율화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그 수단 중 하나가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산업이다. 현치웅 대표는 EEWS 3~4기 강사로 초청돼 '에너지 효율화 산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에너지 효율화 부문의 현업 이야기를 전했다.

"KAIST EEWS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등 글로벌 아젠다를 다루고, 에너지·환경·자원·지속성장 기능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업계, 학계에서 모두 유익한 과정"이라고 애정을 표했다.

#### 에너지 콘텐츠 마켓(Energy contents market) 시대의 도래

이산화탄소의 저감을 위한 국가간 협약이 체결되고 있으





며, 2012년부터는 저탄소 녹색성장법의 규제가 비즈니스 환경의 판도를 바꾸게 될 것이다. 현대 대표는 "IT로 인해 비즈니스의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발생을 하였듯이, 향후 화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의 융합 또는 최적의 에너지 효율화와 솔루션에 대한 needs가 증가할 것이며 이를 위해 financing model과 엔지니어링 역량을 결합한 에너지 종합기업의 business chance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위해 삼천리 ES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기존 에너지 비즈니스가 독점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였다면 이 패러다임은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절감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게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비용을 줄일 것인지 등을 고민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새로운 '에너지 솔루션 비즈니스'이며, 에너지 솔루션 비즈니스에서도 이러한 고민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핵심이 될 것이다.

####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창의적인 발상 필요

현치웅 대표는 후배들에게 "Energy solution 사업은 다양한 에너지 기술뿐 아니라 financing, engineering, IT의 융합과 컨설팅 및 다양한 management 기술이 필요하기 때

문에 기술과 경영의 조합이 어우러진 KAIST의 MBA 과정 학생에게 많은 기회가 올 것"이라며 "에너지 분야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향후 개척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융합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우리나라 에너지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를 단편적인 구조에서 보지 말고, 많은 에너지를 융합하여 어떻게 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지, 산업공장, 공공기관, 대형빌딩 등 다양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Energy 사업은 녹색 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산업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만큼 MBA 학생들에게 꿈의 직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MBA 학생들이 능력을 한껏 뽐낼 수 있는 공간이다. 인터뷰 말미에 현치웅 대표는 KAIST 학생들에게 더 많은 채용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한재환 기자**

